

의류관리기, 제대로 쓰는 법

의류관리기를 제대로 쓰면 옷이 새 옷처럼 변합니다.

2025.06.01



Editor. 마케터 지아니

“오늘 입은 셔츠, 진짜 괜찮은 상태인가요?”

퇴근하고 돌아온 저녁.
현관문을 열자마자, 무심코 벗어둔 옷들.
하지만 그 옷들, 지금 미세먼지와 습기, 냄새까지 그대로 품고 있다면?

“그냥 옷장에 넣어두면 되지 않나요?”
잠깐만요!
당신의 멋과 건강,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까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

- 🧺 의류관리기 하나면?
- ✔️ 출근 준비가 10배 쉬워지고,
- ✔️ 외출 후 돌아오는 시간도 상쾌해 집니다.

지금부터 의류관리기 사용법을 아주 쉽고,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! 😎

로이페 의류관리기 구입하기

[의류관리기 사용법 가이드]

★ 1단계: 의류관리기 전원 켜기: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지게 설치해주면 끝!

★ 2단계: 오늘 하루 입었던 옷 혹은 정리하고 싶은 옷 넣기
- 셔츠, 코트, 바지 등 다양한 옷을 전용 옷걸이에 걸어서 넣어주세요.
- Tip: 절대 너무 많이 마세요. 최대 7벌까지 가능한 기계예요.

📷 실제 옷을 걸어 넣는 이미지 첨부

★ 3단계: 옷에 맞는 코스 선택하기
- 표준 코스 평소 셔츠, 코트 등 데일리 옷에 딱!
- 강력 탈취 고기 냄새, 담배 냄새 싹~ 날리고 싶을 때
- 섬세 코스 실크, 니트 같은 여리여리한 옷 전용 코스
- 건조 전용 급하게 마르고 싶을 땐 사용!

★ 4단계: 끝난 후 정리하기: 문을 살짝 열어 두면 내부 습기도 제거되므로 꼭 문을 살짝 열어두세요!

📷 사용 후 문 열어두는 모습

- 💡 알.잘.딱.깡.센 꿀팁 모음! (알아서 잘 딱 맞게 깡끔하고 센스 있게)
- 🌸 향기시트 함께 쓰면 옷에서 은은한 향이 🌸
- 💧 구김이 심한 옷은 살짝 물 뿌리고 돌려보세요.
- 📅 외출 전에 15분만 돌리면 드라이 말긴 느낌 그~대~로!

로이페 인스타그램에서도 소식받기